

# The Together Story



## 함께 하는 이야기

록산나 오로이언이 아이들을 위해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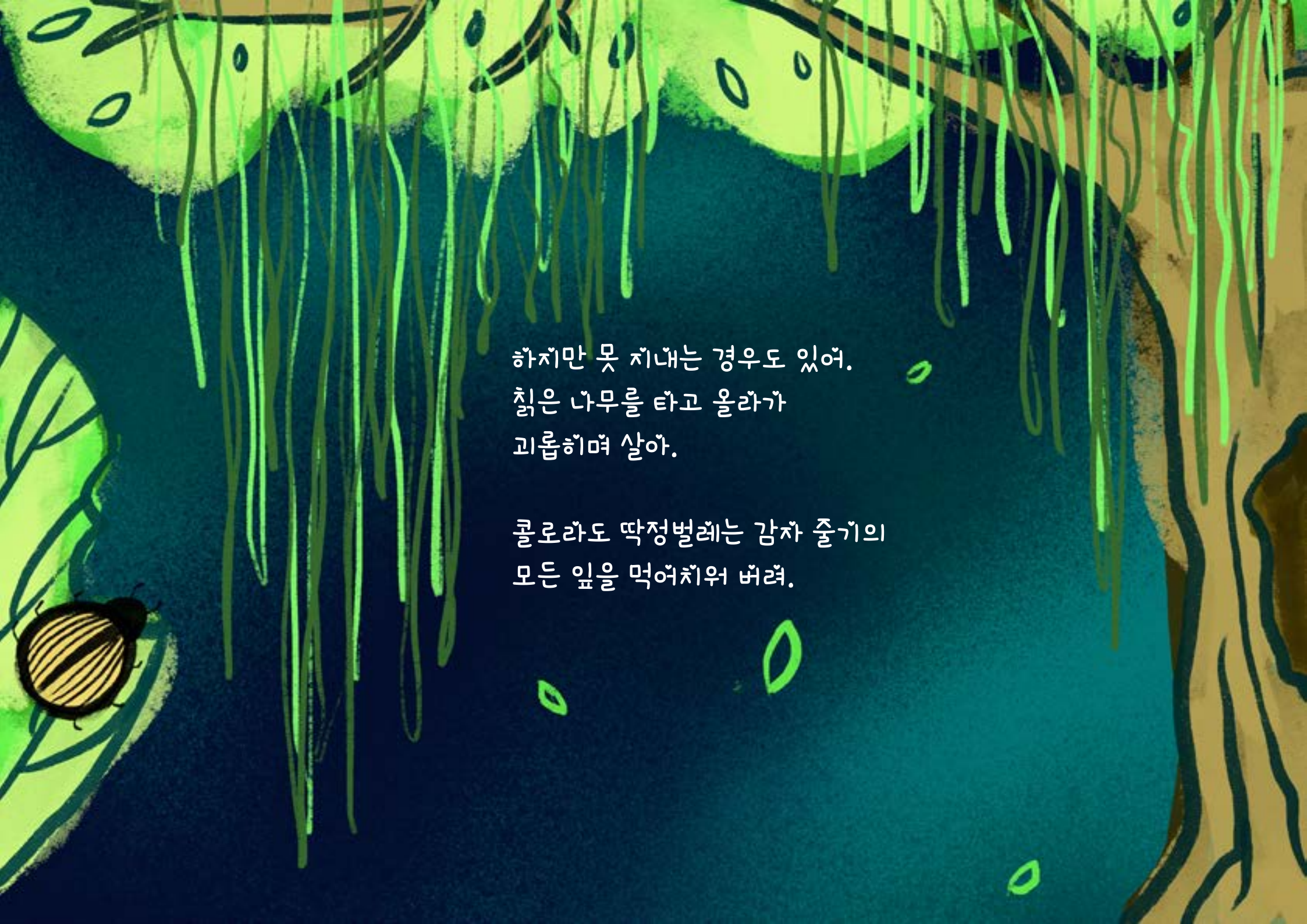
지구, 태양과 세 번째로 가까운 이  
행성에는  
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아~~~~~주  
많아.

엄청나게 큰 것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 
무척 다양해

때때로, 이 생명체들은 함께 잘 지내.  
벌과 꽃들,

흰동가리와 말미잘 같은 것들이 그래.





하지만 못 지내는 경우도 있어.  
굵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  
괴롭히며 살아.

콜로라도 딱정벌레는 감자 줄기의  
모든 잎을 먹어치워 버려.



사람들도 어떤 동물과는 어울리지 못해서 그 동물을 다 죽여버리기도 해.  
서부 흑 코뿔소나 핀타 거대 거북이가 그래.



때때로, 크기가 비슷한 동물들은 서로 잘 지내지 못해.  
가젤과 사자가 그래.





하지만 크기가 다른 동물들도 서로 잘  
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 
너와 모기를 생각해 보! 이해가 되지?



자, 이걸 보.  
너무 작아서 “생명체”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 
것들이 있어.

이것은 아주 아주 아~~~~주 작아서 현미경을  
통해서만 볼 수 있어.  
크기는 아~~~~주 작지만 훨씬 더 큰 생명체를  
괴롭힐 수도 있어.

바다, 오존층,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인간에  
비교하면 크기가 무척 크지?  
하지만 인간은 큰 바다를 오염시키고, 오존층을  
파괴하고 빙하를 녹이고 있어.  
마찬가지로, 현미경으로 보야 보이는 이 작은  
것들도 작지만 인간을 해칠 수 있어.

★ 지구에 살고 있는 아~~~~~주 많은 생명체들은  
놀랍도록 모두 연결되어 있어.  
태양과 세 번째로 가까운 이 행성에는 살아있는  
생명체들이 아~~~~~주 많아.





때때로, 아주  
작은 것들은 크기가  
큰 생명체 속으로  
들어갈 수도 있어.

모기를 예로 들어 보자.  
모기는 실수로 네가 씹지 않는  
이상 너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 
힘들어.

그렇지?

하지만 바이러스, 즉, 현미경  
없이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은,  
쉽게 너의 몸에 들어갈 수 있어.

너의 몸 안에  
들어가는 그 많이  
작은 생명체들은  
몸속에서 친절하게  
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도록  
도움이 되게 행동하기도 해.  
대부분의 것들은 그래.  
다시 말해,  
그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 
건강하게 만들어줘.

하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 
것들도 있어.

이것이 지금 우리가 집 안에  
머물러야 하는 이유야.

요즘, 몸속에 들어가서  
우리들을 아프게 만드는  
새로운 작은 바이러스가  
생겼어.

이것은 아주 새로운 것이야.  
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처음  
봐서 아직 잘 몰라.



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간다면,  
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작은 것, 코로나 바이러스가  
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갈지도 몰라.  
코나 입을 통해서 말이야. 어떻게 들어가냐고?  
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. 하지만 들어갈 수 있어.

기억해, 어떤 생명체는 크고 어떤 것은 아주  
아주 작아.

크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.

크기와 상관없이 잘 지내지 못하는 것들이  
있으니까 말이야.

이것이 우리가 손을 아주 잘, 그리고 아주  
자주 씻어야 하는 이유야.

손을 씻으면, 이 작은 것들이 멀리  
도망가거나 사라져.

우리 모두는 안전하길 원해.

우리 모두는 말이야.

함께 안전하길 바래.

너도, 엄마도, 아빠도.



너는 어리고 아주 튼튼해.  
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 
아주 작은 것들 보다 훨씬 더  
튼튼해.  
하지만 할아버지는 튼튼하지  
않을지도 몰라.  
할아버지가 너보다 훨씬 더  
크다고 해도 말이야.  
요즘 우리가 할아버지와  
할머니를 자주 못 보는 이유야.

비록 우리가 집 안에 머무르고  
자주 손을 잘 씻는다고 해도  
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작은  
것들은 우리 주변에 여전히  
있어.  
할아버지와 할머니 몸 안으로  
그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 
않았으면 좋겠어.





이것이 지금 우리가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못  
하는 이유야.

대신 집 안에서 일을 하긴 하지.

이것이 네가 밖에 나가 놀지 못하는 이유야.

이것이 네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 
이유야.



이것이 네가 친구들을 볼 수 없는 이유야.  
네가 친구들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아.  
하지만 그거 알아?

친구들도 너를 보고 싶어 해.

친구들도 너처럼 집에만 있어야 해.

친구들도 너처럼 손도 자주 씻어야 해.

그래야 이 작은 것들이 도망가거나  
사라지거든. 우리는 모두 안전하길 바래.





우리 모두 다. 함께. 각각 떨어져서. 우리는 모두 안전하길 바래.

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작은 것이 나쁜 건 아니야.

단지, 사람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것 뿐이야.

사람들도 나쁜 건 아니야.

비록 가끔 사람들의 행동이 다른 생명체를 해치기도 하지만 말이야.  
파괴된 오존층, 더러워진 바다, 사라진 생명체들을 예로 들 수 있어.

우리는 나중에 함께 즐기기 위해 지금 떨어져 있어.

지구, 태양과 세 번째로 가까운  
행성.  
아~~~~주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.  
엄청나게 큰 것부터 아주 작은  
것까지 다양해.  
우리는 서로를 보며 배워.  
매일.  
모두 함께.  
이 작은 것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 
하는 시간이 지나면  
우리는 좀 더 잘 알게 될 거야.  
우리는 좀 더 좋아질 거야  
우리는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 
거야.  
스스로를 위해.  
지구를 위해.  
우리 모두.  
함께.



하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있어야  
해.  
집 안에 있어야 해.  
손도 깨끗이 잘 씻어야 해.  
네가 집안에서 안전하게 손도  
잘 씻어서 고마워.  
함께.



몇 가지 더 말해 줄게.



애완동물은  
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그  
작은 것과  
함께 있어도 괜찮아.  
발을 너무 자주 씻길  
필요도 없어.

“아무것도 만지지 않는”  
게임을 하자고  
아빠께 말씀드려봐.  
음식을 사러 가거나  
강아지 산책을 시키려고  
집 밖을 나가야 할 때마다  
말이야.  
오~. 잠깐만.  
강아지는 만져도 좋아.



엄마와 “무슨 동물이 될 수  
있니?” 게임을 해 봐.  
가면을 쓸 때마다  
그냥 상상해.:  
곰, 고양이, 토끼 등 원하는  
건 뭐든.  
옆에 굴러다니는 마커를  
이용해도 좋아.



기억해.  
가면만 만질 수 있어.  
얼굴은 절대 안 돼.  
눈, 코, 입은 그 작은 것들이  
몸속에 들어 올 문이 될 수  
있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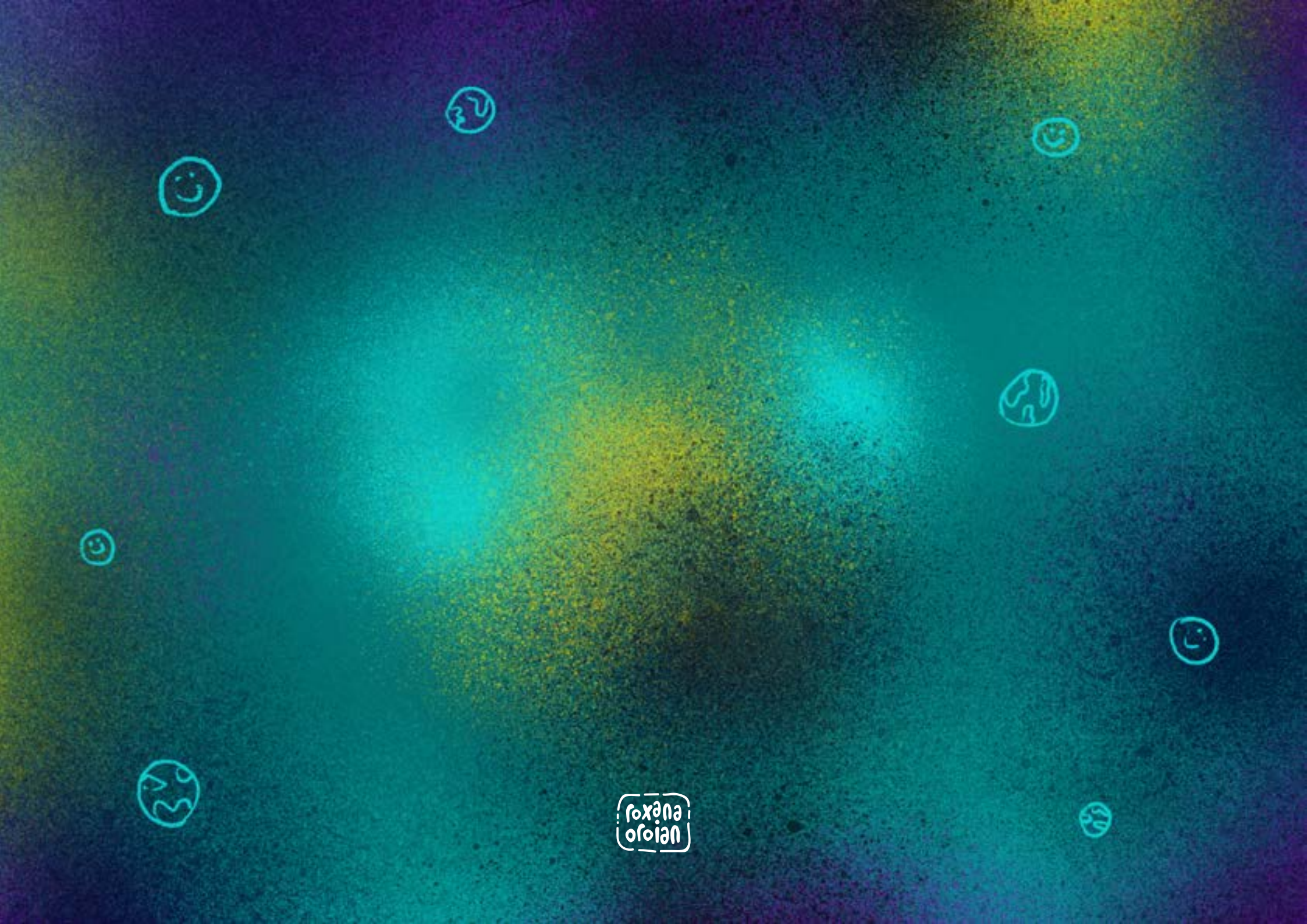
작가가 어른들이나 부모들에게 : 모든 가정이 항상 건강하고 감사와 호기심으로 가득찬 곳이길...

이 책의 편집자 케이트 루드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

-창원자유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번역함(성범, 다운, 하진, 병철, 가연, 정린, 성민, 상민, 지원, 나라, 영애, 영욱, 영주, 미나)

Copyright Roxana Oroian 판권 소유





roxana  
oroian